민주당 지방선거 경선방식 어떻게 되나

현역 기득권 줄이고 신인 문호 넓힌다

여론조사 대의원·진성당원에 가중치
후보검증 '시민 배심원단' 구성 검토

민주당이 내년 지방선거 경선에서 단순 인지도에 따른 현역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기득권을 최소화하는 경선 방안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어 지역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민주당은 이같은 '공천 혁신'을 통해 한나라당과의 후보자 비교우위를 점해 내년 지방선거에서 승리, 정권 창출의 기반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1 3일 '민주당 혁신과 통합위원회' 및 '지방선거기획단'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 경선에서 현역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의 기득권을 최소화하는 과감하고 새로운 경선 방식 도입으로 공천 혁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실용적 개혁 세력 결집'을 명분으로 공천 개혁 드라이브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를 상쇄할 수 있는 과감한 경선 방안을 마련,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국민적 관심을 집중시킨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인지도가 높은 현역 단체장과 지방의원 등이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밖에 없는 '국민 여론조사 50% + 당원 여론조사 50%'의 일반적인 경선 방식에서 탈피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민주당 내부에서는 국민 여론조사 50%는 유지하고 당원 여론조사 경선의 경우, 대의원과 진성당원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역 국회의원의 영향력이 작용하는 선거구별 대의원과 진성당원에 가중치를 둘 경우 현역 단체장과 지방의원의 단순 인지도가 불러오는 정치신인 진출 장벽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고려되고 있는 방안이다.

특히, 호남의 경우, 일반 당원과 민주당을 지지하는 지역 유권자의 변별력이 그리 크지 않다는 점에서 진성당원이나 대의원 경선에 무게를 더 둔다는 것이다. 다만 이에 따른 진성당원 모집 과열이나 국회의원 입김이 커질 수 있다는 문제점이 걸림돌이다.

여기에, 여론조사도 단순 지지 여부를 묻기 보다는 적합도 질문을 통해 인지도의 함정을 피해나가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민주당 일각에서는 외부인사 영입 등을 통한 '시민 배심원단' 성격의 기구를 구성, 후보 검증의 역할을 맡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이 방법도 배심원단과 후보 간의 친소 관계 등을 놓고 논란을 피해갈 수 없다는 점에서 기초의원 경선 등 부분적으로 도입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제한적으로는 모바일 경선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지만 휴대폰 번호가 광역별이나 지역별로 분류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현실화가 어려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민주당 지방선거 기획단 핵심 관계자는 "일반적인 경선 방식인 국민 여론조사 50% + 당원 여론조사 50% 방식은 도입되지 않을 것"이라며 "현역 단체장과 지방의원의 기득권을 최소화하고 시민 참여와 후보 검증을 효율화할 수 있는 경선 방안 도입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선 방식 도입을 둘러싸고 민주당 내부에서는 미묘한 온도차를 감지되고 있어 상당한 논란과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실제로 김민석 지방선거기획단장 등 일부 구 민주계 측에서는 인위적 경선 방식 도입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 반면 당내 주류 측에서는 중앙당이 보다 적극적으로 공천 개혁을 주도해야 한다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당초 이달 중순께 선을 보일 예정이었던 경선 방식은 해를 넘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임동욱 기자 tuim@

15일 서울서 F1 코리아 국제포럼

F1대회 성공개최 방안 찾고 국가브랜드 제고 전략 논의

15일 조직위 출범과 함께 열리는 제3차 F1 코리아 국제포럼에서는 F1 대회를 통한 국가 브랜드 향상 방안 등을 놓고 국내외 전문가들이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이날 포럼은 F1 코리아 그랑프리 개최에 따른 국제적 인지도 제고 방안에 대한 토론을 통해 국가브랜드 제고 전략과 F1 대회 성공기원을 위한 여론 형성 등을 모색하기 위해 만들어진 자리다. 기조 발제자로 나설 어윤대 국가브랜드 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주제 발표를 통해 "올림픽이나 월드컵 대회 개최를 통해 우리 사회가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온 만큼 코리아 F1 대회도 대한민국 국민의 글로벌 시민의식을 한 차원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코리아 F1 그랑프리를 통해 세계시장에서 또 한번 국민의 가치가 높아질 수 있는 기회라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그는 이어 F1 대회를 통해서 국가간 인적교류가 활발해지고 이에 따른 자동차와 환경에 관한 논의와 개발도상국을 위한 기술지원에 관한 이슈에도 대한민국이 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도 역설할 계획이다.

대한민국이 코리아 F1 대회를 통해 브랜드가 한 차원 더 높아지는 만큼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도도 높아져야 한다는 것이다.

웬자오 대만 외국어대학 교수는 '코리아 F1 그랑프리와 대한민국의 이미지'란 주제발표를 통해 한국이 F1 대회를 통해 어떤 이미지를 전 세계에 알릴 지에 대한 생각이 먼저 이뤄져야 하는 점을 지적했다.

이훈 한양대 교수는 'F1 그랑프리 개최가 한국 관광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F1 대회에 따른 한국 관광 이미지 제고를 위한 제언을 할 예정이다.

이 교수는 한국 관광 이미지 제고를 위해 ▲한국 및 지역의 고유한 이미지 결합을 통한 이미지 상승 효과 ▲F1 대회의 친환경적 운영 ▲국가적 차원의 홍보와 지원 ▲경기장과의 접근성 측면의 다양한 전략 준비 등을 제안했다.

이태희 한국관광학회 부회장(경희대 교수)은 F1 코리아는 신비감·감각·친밀감으로 구성된 '러브 마크'가 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 부회장은 구체적인 '러브 마크화' 방안으로 체험상품의 강화·목적지화·한국인의 존경 구축·신비감 강화 등을 주장할 계획이다.

바오유페이 상해 F1 프로모터 조직위원회 부사장은 '중국 F1 그랑프리의 효과'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상해 F1대회가 중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한다.

그는 포럼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올림픽과 같이 F1 중국 그랑프리가 열리는 동안 전 세계의 언론매체들이 경기와 중국 상하이에 대한 수많은 보도를 쏟아냈다"면서 "특히 조직위는 F1 중국 그랑프리를 통해 2010년 중국 상해 세계박람회를 홍보, 엄청난 홍보효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유니버시아드 영어스쿨' 중학생 192명 시범교육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에서 활동할 영어 자원봉사자 양성을 위한 '유니버시아드 영어스쿨' 시범교육이 실시된다.

13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유니버시아드 영어스쿨 개설에 앞서 내년 1월4일~8일까지 전남대와 조선대 언어교육원에서 중학생 192명을 대상으로 영어 교육을 실시한다.

참가자들은 4박5일 동안 합숙하며 원어민 교사와 함께 하루 10시간 총 50시간을 집중 학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교육대상자는 광주 지역 소재 중학교 재학생으로 학교장 추천을 받은 특별전형(96명)과 공개 모집하는 일반전형(96명)으로 선발한다.

특별전형은 영어 성적 20% 이내 학생으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광주시교육청이 선발한다. 일반전형은 14일~21일까지 8일간 광주시 홈페이지(www.gwangju.go.kr)에서 접수한다. 영어스쿨은 내년 3월 개설 예정이다. 문의 광주시 마케팅기획과 (062)613-3076.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남도 슬로푸드 대잔치 12일 담양군 창평면 삼지천마을에서 열린 '아시아 최초의 슬로시티, 남도 슬로푸드 대잔치'에서 참가자들이 담양 창평과 완도 청산도, 장흥 유치·장평, 신안 증도 등 전남 지역 4개 슬로시티의 음식재료를 섞는 합재식을 갖고 있다. 이날 행사에선 담양의 태양초 고추와 장흥의 표고버섯, 신안 천일염으로 버무린 김장을 비롯 유기농 재료를 사용한 남도의 다양한 음식이 선보였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여수시 박람회 대비 면세점 개설 추진

여수시가 2012년 여수박람회 개최를 앞두고 시내 면세점 개설에 나선다.

여수시는 11일 "관세청이 최근 시내면세점의 신규 특허 요건을 일부 완화하는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입안 예고함에 따라 조만간 면세점 개설을 추진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이같은 방침은 관세청이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가 열리는 대구와 2012년 세계박람회가 열리는 여수시를 고려해 개정안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여수시는 일단 면세점 개설에는 민간업체의 참여가 관건인 만큼 조만간 면세점 설치 의향을 가진 업체와 접촉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여수지역 면세점 개설이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존 고시에는 신규 특허 예정지역의 외국인 입국자가 30만명 이상 증가할 때만 신규 면세점 특허를 내주도록 규정돼 있었지만, 전국을 권역별로 나눠 30만명 기준을 채우기 쉽도록 한 것이다. 개정안은 입국자 산정기준을 기존 서울, 제주만 그대로 두고 부산을 기타지역으로 편입하면서 기타지역을 부산 경남권, 대구 경북권, 호남권, 충청권, 강원권 등 5대 광역권으로 나눠 30만명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수시 관계자는 "여수박람회 기간 동안 55만명의 외국인이 방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데다 이번 조치로 광주, 전남, 전북을 합쳐 외국인이 30만명이 넘으면 면세점을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 만큼 면세점이 반드시 개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